

모든 만물은 이어져 있습니다

글/ 어느 인디언

모든 만물은 이어져 있습니다

땅에게 일어나는 일은

땅의 자식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생명의 거미줄은 사람이 짠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거미줄의 한 오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거미줄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일이 됩니다



알리는 말씀

1.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1천만명(개신교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향린 교우들은 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와대, 농림부, 전라북도 등에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365-8900, kcems.peacenet.or.kr)
2.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새만금 살리기 집회가 오후 6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치환, 박은옥, 정태춘 등 출연)
3. 이 땅의 신음하는 피조물을 기억하며 나뉘드린 '녹색십계명'을 지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제 18 회 환경주일 기념 특별강연

일 시 : 2001년 6월 3일

장 소 : 향린교회 향우실

주 제 : 오늘의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숙/ 한국환경정책연구소장)

주 관 : 생명환경위원회

사회 정영훈 집사

비디오 상영 SOS 새만금 말은이

기 도 김성희 교우

강 연 오늘의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알리는 말씀 최영숙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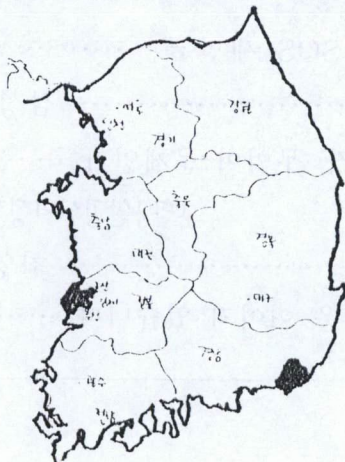
시 낭독 모든 만물은 이어져 있습니다 다같이

새만금 갯벌에 생명과 평화를!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부안 사이의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해역을 가르킨다. 여기에 무려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바다를 메꾸어 농지를 만들려는 것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이다.
- 이 사업은 1987년 전북도민을 겨냥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져 91년 사업에 착수하였다.
- 모두 6조원이 드는 이 사업에 물막이 공사 '방조제'가 절반, 전체 사업의 20%(감사원 자료)가 진행되던 중, 1996년 시화호 오염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면서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 사업 주체인 농림부는 농지확보라는 명분으로 사업 계속을 주장하고,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사업 계속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환경부는 수질 보전의 어려움을 들어,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반대하였고, 지역의 어민,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중앙언론 등도 반대하였다.
- 5월 25일 정부는 '순차적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순차적 개발이란 수질이 나쁜 만경강 해역을 나중에 개발하는 방안으로서 절충안을 선택한 것 같지만, 전북도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으로서 개발비용만 더 들어가는 이 같은 결정에 사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악하고 있다.



(새만금의 면적 = 부산시면적)

간척사업의 문제점

- (1)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와 거기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진다.
조기, 웅어, 전어 등 우리 나라 서해안에 출현하는 어류 76.9%의 서식지, 산란지이며 치어들의 이동통로이다.
- (2) 우리나라 중요한 조개 생산량의 50% 이상이 줄어든다.
새만금에는 조개중 조개라 불리는 백합과 갯지렁이, 게 등 371종의 저서생물이 서식하며 전국 조개류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 (3) 2만여 어민들의 삶이 이미 유린되고 있다.
공사 이전(1990~1995년)의 1차조사에서 파악된 어류 158종에서 공사진행 이후(1997~1999년) 2차조사에서 107종으로 32% 감소했다. 패류 생산량도 1989년 새만금 공사 이전 5,899톤에서 96년 978.4톤으로 무려 84.5% 감소하였다.
- (4) 세계적인 보호 철새들을 비롯한 많은 조류들의 쉼터가 사라진다.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쇠창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의 서식지이다. 봄, 가을에는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200,000마리 이상의 새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한다.
- (5)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의 아름다운 해변이 파괴된다.
조류의 변화로 해안에 악영향을 미쳐 해변이 파괴된다.
- (6) 바다를 메울 흙을 조달하려면 서울 남산 크기의 산이 140여 개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바다의 재앙 뿐 아니라 육지의 생태계까지도 크게 파괴할 것이다. 이미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을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석산까지 파괴하였다.
- (7) 간척 답수호는 수질이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썩는다.
현재의 환경시설로는 만경수역은 등급 외의 수질이 되고, 기존의 어느 간척호수들보다도 수질이 나쁜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대책(전주권을 녹지로 보존, 총량규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산업 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9,700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 건설)으로도 만경수역은 연평균수질이 5급수로 예측되어 환경기준(4급수)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8) 앞으로 천문화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1조 2천억원이 들어갔는데 감사원에 의하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6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전북도의 주장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세울 경우엔 무려 28조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수질보전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I 부: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절 / 환경주일)

인도자: 최 영 숙 집 사
(생명환경위원장)

인 사	홍 근 수 목 사
정 울 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조 계 연 집 사
예 배 부 림	인 도 자
* 열 음 찬 송	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같 이
* 공 동 기 도	다 같 이

인도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볼 것입니다.

회 중: 생명의 주, 주의 세계를 보존하소서.

인도자: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혼돈으로부터 조화가
나타났습니다.

회 중: 생명의 주, 주의 세계를 보존하소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길 잃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잊혀지고 버려진 곳에 오셨습니다.

회 중: 생명의 주, 주의 세계를 보존하소서.

인도자: 거룩한 성령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을 품으셨고, 지금도
양육하시며,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회 중: 생명의 주, 주의 세계를 보존하소서.

인도자: 삼위 일체 하느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하늘의
온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 중: 생명의 주, 주의 세계를 보존하소서. 아멘.

* 영 광 송	『국악찬송』 6장, 영광 누리소서 다 같 이
회 중 기 도	박 명 노 장 로
사 도 신 조	다 같 이

응 답 송	성 가 대
찬 양	성 가 대

성령님 오시옵소서 (Joe Cox & Jody Lindh)

성령님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소서 차가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이제
하찮은 세상일 거두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소서/이 세상 물
든 노래를 거두게 하시고 호산나 노래 부르며 찬송케 하소서/성령님 오시옵소
서 능력으로 오소서 차가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오 주의 성령 오시옵
소서

하늘 말씀 읽기	이사 35,1-8; 골로 1,15-20	홍 승 권 집 사
하늘 뜻을 기다리며	『국악찬송』 8장, 우리를 깨우치소서	다 같 이
하늘 뜻 펴기	광야에 꽃을 피우자	홍 근 수 목 사
침 묵 기 도		다 같 이
송 영		성 가 대
* 응 답 찬 송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 같 이
정 성 드 리 기		다 같 이
감 사 찬 양		성 가 대
* 감 사 송	『국악찬송』 14장, 기꺼이 받으소서	다 같 이
* 감 사 기 도		박 영 숙 집 사
▶ 성 찬 식	(『국악 찬송』 186쪽의 성찬예식문에 따라)	
* 결 단 찬 송	40장,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 이
* 세상으로 보냄		홍 목 사
* 축 복 기 도		홍 목 사
* 정 울 림		조 계 연 집 사

*표에서 회중은 일어남 (일어서기 어려운 분들은 앉아서)

II 부: 그리스도인의 사임

공동관심사의 나눔, 평화의 인사와 친교

▷ 예배위원 안내 ◁

날짜	인도자	회중기도	하늘뜻읽기	감사기도	6월 안내	6월 현금위원
6/10	박명노	이종열	나현대	이승무	이충언	박영숙, 최양호, 김종남,
6/17	박명노	이충언	남호연	임영례	박정훈	임영례, 이승무(향우실)

공동관심사의 나눔

1. 성령강림절 / 환경주일
오늘은 성령강림절로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제정한 제18회 환경주일입니다.
2. 환경주일 강연회
환경주일을 맞아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1층 향우실에서 환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 강사: 박영숙 선생(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 주제: 오늘의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3. 예향 국악선교차 동은교회 방문
국악선교회 예향이 국악예배 반주를 위해 예향 동은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4. 6월 정기 제직회: 오늘 예배 직후에 1층 향우실에서
5. 향린 파발마 발행: 오늘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6. 교회청장년연대모임 농활: 5일(화)~6일(수)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농원에서
7. 총회선교주일 / 금평·향린 자매결연 기념주일
다음 주일은 교단 총회가 제정한 총회선교주일이고, 금평·향린 자매결연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의료선교위원회에서는 금평교회로 의료선교를 갑니다. 의료선교위원들과 자원봉사자는 다음 주일 오전 6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거나 6시 45분까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8. 7월 16-17일 전교인수련회 개최
오는 7월 16-17일에 용인 숙명연수원에서 개최되니 참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9. 새만금 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10. 모임 및 구역예배
• 강동·송파 구역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올림픽공원에서
• 일산 구역예배가 개원 예배를 겸해 오늘 오후 6시에 고정심 집사의 메이산부인과에서(☎ 031-914-5525)
• 강서·양천·영등포·용산 연합 구역예배 다음 주일 오후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 권사회 월례회가 오늘 제직회 직후에 향우실에서
• 전교인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제직회 직후에 '동해'에서
• 6월 24일 예배 후에 미사일 방어체제 저지를 위한 전교인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이 집회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 '심원 안병무 읽기 모임'이 9일(토) 오후 6시에 1층 향우실에서
11. 교우소식
• 새교우: 박인숙(418/회청) 관악구 봉천11동 은천아파트 204-410, ☎ 3285-0788(자택)
• 새교우: 이재숙(1423/청신) 마포구 상암동 42-5, ☎ 374-7694(자택)
• 출 국: 김근호 집사/송금심 장로가 지난 29일에 아들 방문차 미국으로
12. 감사헌금
강정구/노재열(범사), 나영훈(퇴원), 박명노/윤임자(범사), 오승호/이미혜(범사), 유혜순/임승계(장로임직), 이은경B(결혼), 이충언(장로임직), 임지은/김장식(선진돌), 전경옥(음악회마침), 정선미(생일), 최영숙(범사), 최지양(승진), 홍수연(이사) *공동식사: 임지은/김장식

2001년의 표어

'주여, 민족을 하나되게 하소서'

(에제키엘 37,22)



향린교회

(1953년 -)

2001년 / 통일염원 57년 6월 3일
성령강림절 / 환경주일

예배와 친교

주일예배 : 오전 11시

반 주 자 : 이은영(오르간) 신은하(피아노)
성가대 지휘자 : 조계연
예 향 악 장 : 이진우
장 로 : 강영옥 박명노 이충언 임승계
조재상 추광태 홍영진
김종태* 송금심* (*안식년)
협 동 장 로 : 김판순 이종열 조규혜
원 로 장 로 : 도기순 장충협 홍창희
선 교 목 사 : 이증구(서울대병원 원목)
김 진(크리스찬 아카데미)
교 역 자 : 김승태(준목) 조 순(준목)
이혜진(부목사) (안식년 휴가 중)
정원진(부목사) ☎ 016-229-4688
홍근수(담임목사) ☎ 011-264-1657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hyanglin.org>
P C 통 신 : 천리안 go hyangrin
E - Mail : hyangrin@chollian.net

한국기독교 향린교회
장로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4-11
전 화 : 776-9141, 776-3806
FAX: 776-2761